

이젠, 친환경차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상반기 내수 판매 20만대 돌파 전년비 40% 늘어

현대차·기아·벤츠 등 하반기 신차 출시 앞두고 전기차 시장 확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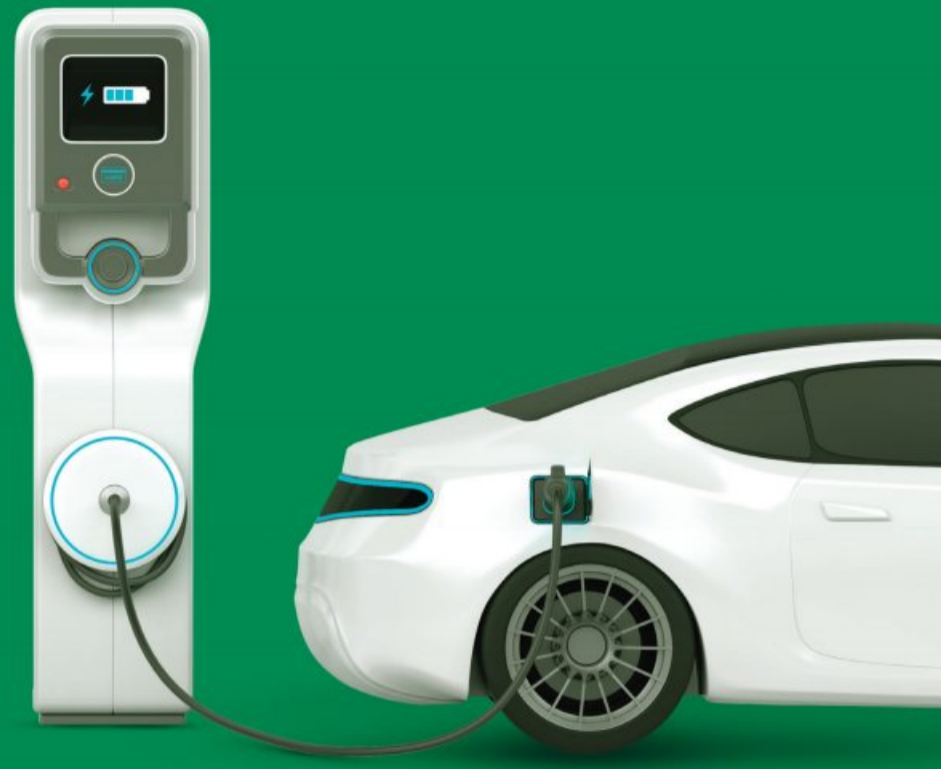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5'



벤츠 '더 뉴 EQS 350'



이제 자동차는 '친환경'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가 20만대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업체를 비롯해 수입업체도 잇달아 전기차 신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와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차의 올해 상반기(1~6월) 내수 판매량은 총 20만3721대로 지난해 상반기(14만7600대)보다 40.7%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6만7317대로 작년 동기(5만1086대) 대비 31.8% 늘었다.

특히 현대차는 국산차 업체 중 최초로 반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3만1672대로 하이브리드 판매량(3만7600대)보다 많았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아이오닉5가 1만5103대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5700대) 대비 165% 늘어 실적을 견인했다. 이어 포터(1만400대), GV60(3401대), G80(1591대), GV70(1537대) 등의 순이었다.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그랜저가 1만1761대 팔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량 중 가장 많았다. 기아의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4659대로 지난해 상반기(4만3350대)보다 95.3% 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6만1467대 팔려 작년 상반기

(3만4487대)보다 78.2%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쏘렌토가 2만3412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7689대)보다 32.4% 늘어 실적을 견인했다. 전기차는 2만3192대가 판매돼 지난해 상반기(8863대)보다 161.7% 늘었다. 이는 완성차 5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V6가 상반기에 1만2158대 판매돼 실적을 이끌었고, 봉고(8351대)와 니로(2683대)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수입 친환경차 역시 총 5만1121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4만9671대)보다 2.9% 늘었다. 이중 전기차는 지난해 상반기 2666대에서 올해 6294대로 136.1%나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3

만7640대가 판매돼 작년 상반기(3만5703대)보다 5.4% 늘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7187대가 팔려 작년 동기(1만1302대)보다 36.4% 줄었다. 이처럼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업체가 최근 전기차 신 모델을 공개하고, 출시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현대차는 오는 15일 열리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6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 공식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1세대 니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Purpose Built Vehicle) '니로 플러스'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전기 특장차인 '봉고 III EV 냉동탑차'도 출시했다. 이어 내년 EV7 출시도 앞두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지난달과 이달 럭셔리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옥이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업체가 최근 전기차 신 모델을 공개하고, 출시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현대차는 오는 15일 열리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6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 공식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1세대 니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첫 번째

기아 오토랜드 광주, 예술인재 육성 1억6000만원 후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정장 박래석)는 11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재능 육성을 위한 '2022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 행사는 광주 대자중학교에서 진행됐으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전달식 후 이어 대자중학교 강당에서는 3학년 학생 280여명과 함께 1회 명사 토크콘서트가 진행, 1·2학년 학생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콘서트를 시청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KBS 개그콘서트 '헬스칼' 코너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해 관심을 모은 개그우먼 이희경이 멘토로 나서 '도전의 혜택을 누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9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을 전개, 올해까지 총 11억 7000만원을 후원했다. 올해 기아챌린지는 명사 토크콘서트, 문화콘서트, 체험아트랜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드림(Dream) 콘서트와 퓨전 국악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으로 구성돼 추진된다.



드림 콘서트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참여형 명사 토크콘서트 3회, 문화콘서트 5회, 체험아트랜드 15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들은 명사 멘토링 및 문화 컨텐츠 경험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 나아가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데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아는 전망했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연계, 교육복지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퓨전 국악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발된 아동 및 청소년

들은 8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난타 교육을 받으며, 12월 제작 발표회를 통해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사업을 통한 경험이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마세라티 '여름 이벤트'

벤츠, 내달 9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벤츠 차량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2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벤츠 코리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약 5주간 전국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2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은 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배터리 등 안전 주행에 필수인 주요 항목들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또 메르세데스 오리지널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 혜택과 4년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골프 우산 등 타이어 브랜드별 사은품도 제공된다. 여기에 메르세데스 미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신규 다운로드 고객과 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결제 사용 고객에게도 여행용 네임택 티셔츠



블러 등의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 날씨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 및 차별화된 혜택과 함께 타이어 구매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2022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은 전국 75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모든 벤츠 차량 고객은 캠페인 기간 동안 가까운 서비스 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2종 출시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Majesty9) 솔루스(SOLUS) TA91 EV'와 '크루젠(CRUGEN) HP71 EV'를 8월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마제스티9 솔루스TA91 EV'와 '크루젠 HP71 EV'는 이런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행성능과 승차감까지 고려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을 기반으로 첨단 EV 기술이 집약됐다. 신제품에는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산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최적 컴파운드를 사용했으며,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을 향상했다.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딥플(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통해 주행성능과 마모성능도 높였다. 또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내부에 폼



(Foam)이 부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옵션사향으로 마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공명음 저감 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흡음재를 부착해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감소시킨 저소음 타이어로,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소음 저감 신기술인 K-Silent(흡음기술)가 적용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외 전기차 정비 역량 강화 현대차 'EV 테크 랩' 워크숍 개최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전동화 시대에 따른 전기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정비 특화 워크숍인 'EV 테크 랩(Tech Lab)'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多) 발생, 고난도 수리 중심의 전기차 정비 특화 워크숍을 통해 해외 전기차 정비 서비스 인력을 육성,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 전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워크숍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전기차 서비스 부문 핵심 정비 인력 2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됐다. 교육은 현대차 소속의 자동차 정비 부문 대한민국 명장 등 국내 및 해외 우수 서비스 인력 주도로 실시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7월 계약 고객 등록세 지원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간 썸머 스페셜 프로모션(Summer Special Promotion)을 진행한다. 썸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마세라티는 기블리 전 차종 및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계약 고객에 자동차 등록세를 지원한다. 또한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계약 고객에게는 평생소포품무상 교환 및 연장보증 서비스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추가 제공한다. 한편, 마세라티는 최근 슈퍼 스포츠카 MC20의 컨버터를 버전인 'MC20 첼로(Cielo)'를 공개한 바 있다. 글라스 루프를 장착한 MC20 첼로는 루프를 열거나 닫을 때 모두 MC20 쿠



페 모델의 퍼포먼스와 성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100% 선주된 생산으로 제작되는 MC20 첼로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